

대웅제약, 코엔자임Q10 시장선점 박차

대웅제약이 국내 코엔자임Q10 시장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.

대웅제약은 11월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“2008년까지 코엔자임Q10 분야에서 2개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국내 코엔자임Q10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코엔자임Q10은 인체의 모든 세포와 혈액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기존 항산화물질에 비해 2-3배의 항산화 작용과 에너지 생성기능을 갖고 있으며 노화를 방지한다.

정난영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코엔자임Q10을 함유한 종합영양제 <게르론 코큐텐>을 선보이고 “대웅제약은 세계에서 2번째로 코엔자임Q10의 합성에 성공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08년까지 젊음·활력, 뷰티를 양대 브랜드로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12/01>